

성역할 고정관념 및 특성이 기혼여성의 취업에 따르는 적응문제에 미치는 영향 : 저소득층의 경우

정진경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에서는 취업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 기혼여성들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적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지어 알아보고, 성역할 성격특성이 스트레스에 대처하여 적응하는 정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20대에서 40대의 기혼여성들 중 공장노동자, 파출부, 노점 및 행사, 청소원 등의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168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직업관련 요인, 가정생활관련 요인, 성역할 특성, 생활에 대한 적응 정도 등을 측정하였다. 취업에 따르는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장시간의 노동과 낮은 소득, 예로운 작업환경 등 저소득층의 노동상황에 따르는 예외사항과 더불어 자녀의 보호와 교육문제, 집안살림을 제대로 못하는 것, 중일 파로트 건강을 해치는 것 등 전통적인 성역할의 분담에서 오는 문제들을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특성을 조사한 결과 여성성은 높으나 남성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 집안이 결혼과 취업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고정관념적으로 성전행화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생활에 대한 적응정도의 예측에는 남성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성성은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이러한 집단특성과의 관련하에 해석되었다.

산업화 이전의 시대에는 가족이 생산, 재생산, 교육 등의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단위였으나, 산업화와 더불어 생산적인 노동이 질박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가정은 사적인 일, 특히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특수화된 기능을 갖는 곳으로서 여성이 담당해야할 영역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Hareven(1977)이나 Cott(1977) 같은 역사가들은 이런 변화가 성역할에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가정은 작업장이며 사회적 중심지에서 사적인 가족의 주거장소로 변화되었다. 즉, 가

정은 노동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노동의 세계와 분리된 휴식처가 되었다. 둘째, 각 가족 구성원이 맡는 일이 더욱 분화되어 가정은 여성의 영역이 되었고 바깥일은 남성의 영역이 되었다. 가사일은 보수가 주어지지 않으며 덜 가치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셋째, 남자는 중일 작업장에 가있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로 부터의 분리가 더욱 심해지고, 어머니가 주로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짚어지게 되었다. 더우기 산업화는 많은 사람들을 도시로 끌어들이어, 어린이 양육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고 있던 친척들을 서트 떨어지게 하였다. 또한 어린이는

농업경제에서 처럼 가정의 생산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더욱 의존적이 되었으며, 특별한 양육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가지 변화는 가족에 대한 감상주의를 불러 일으켜서 과거에는 결혼이라는 것과 부모가 된다는 것을 경제적인 의미에서 많이 생각하였으나, 현대의 가족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강조함으로써 많은 기능을 잃어버린 공백을 메꾸고 가족적 관계를 정당화시킨다.

가족의 기능에 대한 이와 같은 사회적 고정관념 때문에 기혼여성이 취업을 한 경우에는 여러가지 스트레스 요인이 다르게 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낮에 집을 비우으로써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죄의식인데, 이러한 생각은 '취업모'의 자녀에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조사하는 연구들이 많은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보여주나(이용숙 외, 1989; Hoffman 1974). 취업을 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여전히 죄의식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두번째로 들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은 남편의 뒷바라지 등의 가사에 소홀해진다는 것이다. 거부장적 가족구조안에서 여성은 취업을 하고 있어도 가사노동까지 전담해야 하는 이중의 역할을 부담하고 있을 때, 전업주부에 비하여 가사노동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적으므로 힘은 더 들어도 늘 부족함과 미안함을 느끼기가 쉽다. 부부간에 가사노동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가사영역은 궁극적으로 여자의 책임으로 한정되어 있다(Holmstrom, 1978).

그 이외에도 지나치게 일이 많아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지치며 여유가 없고 긴장을 해소시키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가중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남편의 봉급만으로는 생활이 해결되지 않아서 취업을 해야만 하는 저소득층 기혼 여성의 경우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한다. 신체적으로 힘이 들고 노동시간이 길어서 가사노동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을 뿐만 아니라, 임금이 낮아서 육아

나 취사 등의 일을 위해서 다른 인력을 고용할 수도 없고, 일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거나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일에 대한 자부심도 높지 않기 때문이다(한국 기독교 사회문제 연구회, 1983).

아직 계층적 배경에 따라 여성의 역할 갈등에 따른 정신건강이나 적응정도가 달라진다는 증거가 보고된 바는 없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생활고와 취업 때문에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어려움까지 합쳐지면 심리적 질환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Frieze, 1978). 아내가 직업을 가져야만 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부부 간에 갈등의 소지가 많고 만족도가 낮다는 결과는 외국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는데(Nye, 1974), 그 원인이 부인의 취업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낮은 재정적 수입 등도 원인이 되겠지만,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관련분야의 연구를 보면,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정신분열증의 발생률도 높으며(Kohn, 1968), 저소득의 노동계층이나 실업자의 가정에서 가족내 갈등과 폭력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Straus, Gelles, and Steinmetz, 1981) 등의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생활긴장이 높다는 점과 연결지어 설명되었다.

결혼과 가족내의 역할 갈등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발생하는 경험과 태도 등에서의 차이를 연구한 예가 거의 없었다. 최근에 들어와서야 계층에 따라 스트레스의 내용이나 이에 관한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연구에서는 취업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기혼 여성들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적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성역할 고정관념의 측면에서 알아볼과 동시에, 성격 특성으로서의 성역할 자아개념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볼으로써, 이 대상자집단에 있어서 생활에 대한

적응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려고 한다.

스트레스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은 특정 스트레스 사건이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로 관심을 가졌었으나, 점차 스트레스 사건이 적응을 설명하는 변량이 적고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적응에 개인적인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대처양식을 연구하는 쪽으로 연구의 방향이 전환되었다(김정희, 1987).

기혼여성들의 취업에 따르는 스트레스는 그 원인의 많은 부분이 성역할과 관련지어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처와 적응에는 그들의 성역할 특성이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획기적으로 발전한 심리학의 성역할 연구는 성차이와 성역할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는데(정진경, 1987; 허순희와 정진경, 1987; Cook, 1985) 이러한 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1972년에 Bem이 최초로 제안한 적응적인 성격특성으로서의 양성성(兩性性, androgyny)이라는 개념이었다. 남녀가 뚜렷이 다르고 또 다른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기존의 이론들은 여성이 다양한 직업분야에 진출하고 가족의 구조와 크기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와 가정에서 성역할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적절히 설명해 낼 수가 없게 되면서, 동성간에도 여러모로 차이가 있고 이성간에도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정상으로 보지 않고 모두 비정상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게 된 것이다.

양성성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성별에 관계없이 '여성적인' 특성과 '남성적인' 특성을 공유할 수 있다. 양성성은 "사회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이루는 내용 중에서 바람직한 여성적 특성과 바람직한 남성적 특성이 결합되어 공존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양성성은 기존의 성역할에 매이지 않은 건강하고 적응적인 성격형태로서 의도적으로 제시된 모형이므로 부정적인 특성들은 포함되지 않

는다.

이와 같이 양성성을 건강한 적응(well-being)의 모형으로서 정의했을 때 성역할 특성이 양성적인 사람은 다음과 같은 행동 특징을 지니게 된다. 첫째로 성전형화된 사람은 자신의 성별에 적합한 행동만을 하는데 비하여 양성적인 사람은 여성적인 행동과 남성적인 행동을 모두 함으로 더 다양한 행동을 수행해 낼 수 있다. 더우기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이 동시에 합쳐져야만 가능한 행동은 양성적인 사람만이 수행해 낼 수 있다. 둘째로 양성적인 사람은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바로 그 특성 때문에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나는 여자니까 항상 여자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의 틀에 묶여 있는 사람은 남성적인 특성을 요구하는 상황,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자기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적절한 반응을 할 수가 없다. 이에 비하여, 양성적인 사람은 각기의 상황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여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 세째로 상황의 요구에 따라 유연한 반응을 보이는 능력은 양성적인 사람이 살아가면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 준다. 즉, 어떤 상황에 당면했을 때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확일적으로 성역할을 추종하지 않고 가능한 여러가지의 대안 중에서 바람직한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Kaplan and Sedney, 1980).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사회적 환경에서는 양성성을 지닌 사람이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없다는 한계는 있으나, 심리적으로 억압되지 않은 자유로운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양성성의 개념은 새로운 적응의 모형으로서 그 장점이 여러 면에서 발견되고 있다(정진경, 1987).

이 연구에서는 남성성, 여성성 등과 관련된 성역할 특성이 환경적 자극으로서 오는 스트레스가 생활에 대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완충의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방 법

이 연구에서는 청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기혼여성들 중 직업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의 세부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 청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기혼여성들로서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크게 공장노동자, 파출부, 기타 단순노동자의 세 집단으로 분류되는데 각 집단에 36명씩 모두 108명이었다.

공장노동자는 청주지역에 소재한 공단안에 있는 대규모의 공장을 방문하여 공장장 등의 책임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표집하였고, 파출부는 청주 YFCA의 파출부 알선모임인 '한마음회'를 통하여 표집하였다.

기타 단순노동의 경우는 학교의 청소원, 식당종업원, 노점, 행사, 화장품 판매원 등으로 일터를 직접 방문하여 표집하였다.

대상자들은 20세부터 50세 사이로 연령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표집하였다.

설문지 설문지는 크게 다음과 같은 분야들로 나누어서, 각 분야마다 여러 가지의 관련 변인들을 포함하였다.

- (1) 인구학적 특성 및 생활정도
- (2) 노동상황: 수입, 노동시간(출퇴근 시간), 건강 등.
- (3) 직업에 대한 태도: 취업동기, 직업을 가짐으로써 도움이 되는 점과 어려운 점 일에 대한 만족도, 불만요인, 계속 취업하려는 의도, 본인의 취업에 대한 남편과 자녀의 태도 등.
- (4) 가족상황 및 가족관계:

남편과의 관계: 가사에 관련된 여러가지 상황들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가사노동의 분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 지고 있는가, 부부간의 의사소통 정도,

결혼 생활 만족도, 남편에게 바라는 것 등.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수와 나이, 일을 나가는 동안 누가 돌보아 주는가, 이에 대해 어느정도 안심하는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자녀에게 바라는 것 등. 그 이외에 가정생활에 바라는 것.

(5) 성역할 자아개념: Bem 성역할 검사(BSRI: Bem, 1974).

(6) 적응정도: Beck 우울증 검사(BDI:김명원, 1984),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설문지 실시 조사 대상자의 학력이 일반적으로 낮은 것을 고려하여 설문지는 조사원이 대상자를 만나서 면접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의 대부분이 긴 노동시간에 시달리므로 편의를 최대한 봐주는 방향으로 조사시간을 정하였다. 자료가 비밀이 보장됨을 이야기하여 개인의 생활에 대해서도 될 수록 솔직한 응답을 하도록 격려했다.

결과 및 논의

직업관련 스트레스 요인

노동상황. 조사대상자들의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최소 7시간에서 최대 17시간까지였고, 평균은 9시간36분 이었다. 최린치는 8시간으로서 대상자의 반이 조금 넘는 81명이 8시간 노동에 종사하였으나 대상자의 1/4이 넘는 30명은 12시간 이상의 극도로 긴 노동에 시달리는 것이 발견되었다.

아침에 집에서 나가는 시간은 8시가 가장 많았고(60명) 그 다음은 9시가 많았으며(26명), 드물지만 5시부터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귀가시간은 오후 6시가 가장 많았으나(39명) 그 다음은 밤 11시로서(23명) 밤늦게까지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자들이 모두 기혼여성으로서 대부분이 퇴근 후에도 가사노동에 종사하므로, 파도한 노동시간과 높은 퇴근시간이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을 보면 최저 5만원에서

최고 45만원까지의 분포를 보였는데, 평균은 168,500 원, 최빈치는 15만원이었고, 87%가 20만원 이하의 낮은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남편이 모두 취업을 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 둘을 합한 가구당 소득은 평균 495,900 원이고 최빈치는 50만원으로서, 평균가족수가 4.7명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생활이 넉넉하지는 못해도 생계에 위협이 올 정도는 아님을 볼 수 있다. 그 반면, 남편이 무직이거나 또는 사별하여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15만원 정도의 소득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극심한 상황으로 생계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조사대상자 108명 중 거의 1/4에 달하는 21명이 이와 같은 상황에 있어 이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건강상태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대상자의 52%가 좋은 편, 31%는 보통, 18%는 나쁜 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건강상태와 노동시간간의 상관계수를 내어 본결과 $r = .26 (p < .01)$ 으로서 건강이 좋을수록 노동시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직종에 따라 노동의 시간, 종류, 환경 등이 다르므로 이에 따른 건강상태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검토과정에서 단순노동자 집단은 청소부 등의 단순노동자와 노점이나 행상을 하는 노동자들이 여러모로 다른 특징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후의 분석에서는 이들을 구분하였다. 결과를 보면, 고용직 단순노동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서 건강이 월등하게 좋았고, 다음은 노점 및 행상, 공장노동자, 파출부의 순이었다 ($F = 9.21, p < .00$).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파출부집단이 건강상태가 제일 좋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소득은 낮더라도 자신의 건강을 고려해서 장시간의 힘든 노동을 피하여 직업을 선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과로로 건강을 심하게 해친 경우에는 취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을 시사하는데, 그렇다면 .26이라는 긍정적 상관계수는 trun-

kation효과로 인한 것이고 실제로는 노동시간과 건강의 관계가 직선적인 관계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정은 노동시간이 가장 긴 노점 및 행상이 건강이 제일 좋은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로도 확인된다.

현재의 직장생활에서 가장 피로운 점이 무엇인지 자유로이 응답하도록 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일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다. 과로로 건강이 안 좋거나 몸이 아프다고 대답한 사람들 이외에 건강이 괜찮다고 한 사람들 중에도, 다수가 일이 힘들어서 늘 피곤하다고 하였다. 이는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힘들어도 몸이 버티는 한은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많이 나온 대답은 봉급이 너무 적어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노점 및 행상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고용직의 경우 월 평균소득이 14만원에서 17만원정도로서, 이와 같은 저소득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서 오는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였다. 세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은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공장노동자의 경우는 사무직과의 차별, 남녀차별 등에서 주로 문제를 느끼고, 고용직 단순노동자의 경우는 대부분이 임시직으로서 정식 고용원과의 차별, 상사와의 의견대립 등에서 주로 문제를 느꼈다. 노점 및 행상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수 많은 손님을 상대하는 것이 힘이 들고, 특히 물건 값을 무조건 깎으려고만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정말 어렵다고 하였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제일 많이 호소하는 것은 파출부였는데, 고용자가 무시하거나 의심을 하거나 차별을 하거나 인간적 대우를 안해줄 때 제일 힘들다고 하였다. 그 이외에도 직종별로 작업장 환경에서의 소음, 추위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나타났다.

직업에 대한 태도, 취업을 한 동기, 직업을 가짐으로써 좋은점, 현재의 일에 대한 만족도, 직업을 가짐으로써 어려운 점, 계속 직업을 가지려는 의도 등을 분석하여 직업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았다.

직업을 가지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조사대상자 108명 중 95명(88%)이 '경제적으로 살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였고, '7명은 집안에 있기가 심심해서'라고 대답하였고, 두어 명이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였다. 조사대상으로 삼은 직종들이 승진의 기회가 있거나 전문적 기술이 향상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종들이 아니고 노동상황도 매우 좋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제적인 동기가 압도적이고 그 이외에는 별로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나이에 따라 취업동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경제적인 동기가 1차적이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40대에서는 97%, 30대에서는 86%, 20대에서는 75%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chi^2=16.31$, $p < .05$). 젊은 세대일수록 일을 하는 것에서 돈을 쫓는 것 이외의 다른 의미를 찾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가장 도움이 되는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6개의 응답항목이 있었으나 실제의 응답은 세 항목에만 몰려 있었다. 108명 중 84명(78%)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고, 11명(10%)이 생활에 활기가 생기는 것, 13명(12%)이 사활을 사려고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이 응답에서도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chi^2=25.26$, $p < .01$) 경제적인 도움 이외의 다른 것들을 직장을 가짐으로써 얻는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에서도 20대와 30대가 40대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F=3.47$, $p < .05$) 앞의 취업동기의 분석결과와 종합하여 볼 때 젊은 층이 직업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진보적이고 덜 고정관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시간, 건강 및 소득 등의 노동과 관련된 요인들이 일에 대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일에 대한 만족도에는 건강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강이 좋을 수록 일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노동시간이 짧고 소득이 높을 수록 만족도가 높은 경향도 나타났지만, 이 두가지는 관련이 미약한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소득수준이 일에 대한 만족도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 전반적인 중다회귀상관계수는 .97로서 노동상황과 관련된 요인들만으로는 일에 대한 만족도의 변량 중 일부만을 이해할 수 있음이 나타났는데, 이를 앞의 논의와 종합해보면 직업을 갖는 것 자체에 대한 본인의 태도에서의 개인차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1. 일에 대한 만족도의 예측: 중다회귀분석 결과

	R=	.97**
건강	Beta=	.32**
노동시간	=	-.16
소득	=	.10
** p < .01		

직업을 가짐으로써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조사대상자 108명 중 60명(56%)이 '자녀의 보호와 교육문제'라고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29명(27%)이 '집안 살림이 허술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이외는 '과로로 건강을 해치는 것'이 9명(8%), '스스로를 위한 여가시간이 없는 것(책을 보거나 친구를 만나는 등)'이 6명(6%), '남편과의 시간이 없는 것'이 4명(4%)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자체와 관련된 요인들보다도 자녀 양육문제와 직장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 문제 등 전통적인 성역할의 분담에서 오는 문제들이 취업기혼여성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연령에 따라서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점이 다른가를 검증해 본 결과 모든 연령집단에서 자녀의 보호와 교육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그 다음이 집안 살

림의 문제로 나타났으나 그 비율이 크게 달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chi^2=25.26, p<.01$). 젊은 층일수록 자녀양육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나이가 든 층일수록 집안살림이 허술해지는 문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로로 건강을 해치는 문제는 40대에서만 보고되었음이 밝혀졌다.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보호자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므로 20대가 가장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편견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자녀가 커가면서 신체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지만, 중학교 입학 후에는 어머니가 숙제를 돌보아주고 공부를 감독하도록 하는 학교의 요구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첨가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들 이외에도 얼마가 종일 집안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여러모로 돌보아 주어야 할 아이들이 바르된다는 사회적인 고정관념을 사실로 받아들여, 자신이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하여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의 보육문제를 과다하게 걱정하는 측면도 상당히 있음을 편답을 통하여 볼 수 있었다.

일을 할 수 있는 한 앞으로는 계속 일할 생각인지를 물어본 결과 '꼭 계속하겠다'가 52명(48%),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가 46명(43%), '할까 말까 한다'와 '그만두려고 생각한다'가 각각 5명(5%)이었고 반드시 그만두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앞의 두 항목을 합하면 계속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사람이 91%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정생활관련 스트레스 요인

남편과의 관계 남편과의 결혼생활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며 이에 대하여 여성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결혼생활에 관한 항목들을 분석해 보았다. 이 분석에서는 남편과 사별한 9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99명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남편과의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를 요약해 보면 만족하는 경우가 57%, 만

족도 불만족도 아닌 경우가 23%, 불만인 경우가 20% 정도였었다.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라는 5점척도의 중간점에 응답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중간점에 응답한 사람들만을 골라서 몇가지 관련변인들을 분석해 본 결과 결혼생활에서 특별한 문제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대체로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나 자신의 사생활에 관한 감정의 표현을 주저하는 반응경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20대와 30대는 비슷하고 40대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정도는 되지 못했다.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현재의 자신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간의 상관관계는 .63($p<.001$)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로 선후를 말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결과는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어느정도 하는지에 대하여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물어보았다. 결과를 요약하면, 조사대상자의 61%는 남편과 마음속의 실감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나, 나머지 37%는 일상적인 사소한 이야기만 하고 마음속의 실감한 이야기는 나누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1/3에 달하는 사람들이 남편과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

연령층에 따라 부부간의 의사소통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위하여 Kruskal-Wallis의 순위에 의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H=8.48, p<.05$). 나이가 많은 집단일수록 의사소통의 정도가 낮는데, 특히 40대가 단절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대상자의 34%인 34명 이었는데, 그 비밀의 내용은 금전문제(19%) 자녀문제(5명) 이성문제(4명)

친척문제(3명) 기타(3명) 등이었다.

남편과의 생활에서 불만스러운 점이나 남편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서 자유로이 응답하도록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항목이 몇 가지 있었다. 남편에게 바라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대답은 '몸 건강하고 돈 잘벌어 왔으면', '가정생활에 충실했으면', '술 좀 안먹었으면', '직장 생활에 더욱 충실해 주었으면', '나를 좀 더 이해해 주었으면' 등이었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대개의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건강해 주었으면 하고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로서 남편이 병이 들었거나 건강하지 못하여 걱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돈 잘 벌어들였으면'은 일상적인 대답인 경우도 있었고, 지금보다 하는 일이 잘되거나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벌여주기를 바라는 구체적인 바람인 경우도 있었다. 이는 '돈 좀 잘 벌어들였으면', '부담이나 잘 타왔으면', '돈 많이 벌어들인 집에서 살필이나 하게 해 주었으면', 등의 응답에서 나타났고, 특히 남편이 무직인 사람들은 '걱정을 가져 주었으면', '사회적 활동이 있었으면' 등의 소망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응답들을 살펴보면 그 배경에는 실질적인 경제적인 필요 이외에도 남자가 바깥일을 해서 집안의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적인 기대가 매우 강함을 알 수 있다.

남편이 술을 많이 먹는 것에 대하여 불만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구체적인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술 좀 안먹었으면', '술 좀 끊었으면', '술 먹고 속색이지 말았으면', '퇴근하고 일찍 집에 들어왔으면' 등이었다. '속색이지 않아 주었으면', '성실해 주었으면' 이라고만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 수 있었는데, 이러한 응답자가 표현 그대로 일반적인 의미로 이야기한 경우도 있지만, 이전의 연구들에서 발견한 결과를 참고해 볼 때 남편이 여자문제도 속을 썩이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 하기가 참피하여 모호하게 표현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외에 남편과의 관계에 관련된 내용

으로는 '좀 더 이해해 주었으면', '직장생활을 좀 더 이해하고 조금이나마 협조해 주었으면', '인격적으로 대해 주었으면', '나를 무시하지 말았으면', '신경질 부리지 않았으면' 등, 남편이 자신을 좀 더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이해해 주었으면 바람이 주를 이루었다.

자녀의 보육문제 조사대상자 108명 중에 자녀가 없는 사람은 1명밖에 없었고, 나머지 107명은 모두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총자녀수를 보면 2명을 둔 경우가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3명을 둔 경우가 30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최대자녀수는 6명이었는데 5명의 자녀를 둔 경우가 4사람이었다. 평균자녀수는 2.49로 밝혀졌다. 아직 단산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조사대상자들이 모두 단산을 했을 때쯤은 이 숫자는 다소 늘어날 것을 예견할 수 있다. 자녀 중 아들의 수와 딸의 수를 보면, 아들은 평균 1.50명인데 비해 딸은 .99명으로 아들이 50%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3.19, p<.01$). 이러한 엄청난 차이는 남아선호 경향이 아직도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는데,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교육정도과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아서 그 정도가 특히 심할 것으로 보인다.

직업을 가짐으로써 가장 어려운 점은 자녀의 보호와 교육에 관한 문제라고 대답한 것이 앞의 분석에서 밝혀진 바 있다. 일을 나간 동안 자녀를 누가 돌보아 주는가를 알아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4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집에서 다른 어른들이 돌보아주고 있었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아 주는 어른은 예외없이 시어머니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서 다른 어른이 돌보아주거나 근처에 사는 친척이 돌보아주는 경우에는 자녀가 그렇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들은 대체로 안심하는 편이었으나, 따로 사는 친척이 맡아서 키워주고 있는 사람은 매우 걱정이 된다고 대답하였다. (자녀가 지내고 있는 상태에 따라 안심하는 정도가 다른지를 통계검증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으나, χ^2 시행하

표 2. 일을 나간 동안의 자녀의 보육상황

	4세미만	4-6세	국민학교	중학교
1. 집에서 다른 어른이 돌보아 준다	7	9	10	5
2. 근처에 사는 친척에게 맡긴다	2	3	1	
3. 이웃집에 맡긴다				
4. 탁아소나 유치원에 맡긴다		5		
5. 집에서 큰 아이들이 돌보아준다		2		
6. 따로 사는 친척이 맡아서 키워주고 있다	1			
7. 집이나 골목, 놀이터 등에서 알아서 놀게 둔다		8	29	14
8. 과외활동(주산, 웅변, 미술 등)에 보낸다			22	
9.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다가 늦게 온다				11
10. 독서실에 갔다가 늦게 온다				6
계	10	27	62	36

기에는 기대빈도가 낮은 칸이 너무 많아서 통계결중이 불가능하였다.)

4-6세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집에서 다른 어른이 돌보아주는 사람이 9명(시어머니 8, 이모 1), 근처에 사는 친척이나 탁아소나 유치원에 맡기는 사람이 8명이었고, 집에서 큰 아이들이 돌보아주게 하거나 집, 골목, 놀이터 등에서 알아서 놀게 두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어른들이 맡아서 돌보아 주는 경우에는 안심하는 편인 어머니도 있고 걱정하는 편인 어머니도 있는 반면, 어른들이 돌보아주지 않고 아이들끼리 놀도록 한 경우에는 거의 모두가 걱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학교에 다니는 어린이가 있는 경우, 학교가 끝나고 돌아오면 집이나 골목, 놀이터 등에서 알아서 놀게 두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과외활동을 하러 학원에 보내는 경우, 집에서 시어머니가 돌보아 주는 경우, 근처에 사는 친척에게 맡기는 경우의 순서였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른들이 돌보아주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이 보이기 는 하나, 학교에 다녀와서 혹은 과외활동에 다녀와서 집 근처에서 아이들끼리 노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들의 76%가 걱정이라고 대답하여, 별다른 대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택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는 학교나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늦게 오는 경우가 약 반 정도 되었고, 집에서 다른 어른이 돌보아 주거나 알아서 지내도록 하는 경우가 약 반 정도 되었다. 4-6세의 어린이나 국민학교 나이의 어린이들 보다는 어머니들이 걱정하는 정도가 조금 덜 하였으나 안심한다고 답한 사람들은 41% 정도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체 응답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이 돌보아 준다고 대답한 경우 하나를 제외하고는, 남편이 무직이라도 자녀를 돌보아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어머니가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자녀의 보육문제는 거의 전적으로 어머니가 알아서 처리해야 할 문제이고 아버지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을 보여 준다.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되는 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면 자유로이 응답하도록하여 그 결과를 내용분석해 보았다. 가장 대표적인 걱정거리 는 자신이 직장에 나가서 '아이들만 집에 있는 것'이었다. 특히 자녀가 어린 경우, 즉 국민학교 이하인 경우에 이런 걱정이 많은데, 안전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가정학습을 돌보아주지 못하는 것' 등 아이들의 학습지도를 해주지 못하는 점에 대한 걱정도 상당히 하는 것으로

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 '나쁜 친구를 사귄다', 자식들의 장래가 보장되지 않아서' 등 저소득층으로서 특별히 걱정하는 요인들도 있었다.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저 건강하고 공부 잘 했으면' 하는 것이라고 대부분의 응답자가 대답하였다. 그 이외에는 성격과 관련지어 '올바르고, 착하고,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장래와 관련지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취직자리를 얻고, 쓸세하여' 잘 살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 '형제간에 우애있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좋은 친구 사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등의 소망을 표현하였다.

가사노동의 분담 가정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해야 하는 여러가지 일들을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와, 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각각 알아보고, 이 두가지 응답을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이 결과표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자들이 모두 취업여성들이라 생활비 벌기는 부부공동 이지만, 생활비 관리, 의류나 식품의 구입, 식사준비, 청소, 빨래, 자녀 학교행사 참가 등은 아내가 주로 담당하고, 집수리는 남편이 주로 담당하는 등 성역할 고정관념적인 가사 분담양식을 보인다.

이 일들을 누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보다 더 남편이 가사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나타난다. 식사준비, 빨래 등의 가사노동을 비롯하여 자녀의 학교행사 참가, 자녀의 학습지도 등의 자녀 교육 문제, 편공서 및 은행출입 등의 여러 방면에서 현실과 기대 사이에 유의미한(p<.05) 차이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점은 기대치의 평균을 살펴보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남편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하지만 식사준비, 청소, 빨래 등의 주요 가사노동은 역시 아내가 할 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3. 가사노동의 분담

해야할 일들	누가 담당하는가	누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차이 t	유의미도
1. 생활비 벌기	2.94	1.97	.97	7.58 **
2. 생활비 관리(현금보관)	4.21	4.28	-.07	-.65
3. 물품구입(의류, 식료품)	4.41	4.25	.16	1.86 (.06)
4. 물품구입(가구, TV, 냉장고등)	3.23	3.21	.02	.15
5. 식사준비	4.71	4.57	.14	2.01 *
6. 청소	4.41	4.34	.07	.75
7. 이부자리 더고 개기	3.53	3.60	-.02	-.18
8. 빨래	4.73	4.56	.17	2.30 *
9. 집수리	1.84	1.65	.19	1.66 (.10)
10. 어린자녀 돌보기	3.73	3.67	.11	.97
11. 자녀 학교행사 참가	4.22	3.79	.42	3.86 **
12. 자녀 학습지도	3.67	3.19	.47	2.05 *
13. 편공서 및 은행출입	3.27	2.83	.44	3.52 **
14. 친척관계 유지	3.07	3.07	.02	.25

* p<.05, ** p<.01

척도:	전적으로 남편	주로 남편	부부 공동	주로 아내	전적으로 아내
	1	2	3	4	5

또한 생활비를 버는 일은 남편이 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하여 부부공동으로 하고 있는 현실과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인 필요에 의하여 현재는 취업하고 있지만 남편이 더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면,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고 싶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사전반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누가 일을 담당하는가와 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각각의 평균을 내어 비교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남편이 지금보다 더 가사를 분담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92, p<.01$). 앞의 노동시간에 대한 결과와 연결지어 보면, 장시간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 쉴에서도 대부분의 가사를 담당해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원래는 자신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남편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와 결혼생활 만족도 간에는 .39($p<.001$)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성역할 특성을 살펴보고 이것이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BEM 성역할 검사(BSRI: Bem, 1974)를 번역하여 실시하였다. 이 검사에 포함된 문항 중 남성성 문항들과 여성성 문항들에 대한 응답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남성성점수(남성성 항목에 대한 평균=3.86)가 여성성 점수(여성성 항목에 대한 평균=5.04)보다 1.18점이나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두점수를 t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t=-10.80, p<.01$). 조사대상자들이 자신의 성격을 주로 '여성적인' 바람직한 특성들로 이루어지고 '남성적인' 바람직한 특성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경향은, 비슷한 기간에 실시된 대학생들에 대한 연구에서(정진경, 1989) 여대생들이 자신의 성격을 표현한 것과 비교해 보면(남성성=

4.01, 여성성=4.66), 남성성 점수는 더 낮고 여성성 점수는 더 높아서 훨씬 더 고정관념적인 성역할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성역할 특성과 다른 여러 특성들과의 관련성을 보기 위하여 남성성과 여성성 점수를 준거로 해서 중앙치 분리법(Cook, 1985)을 사용하여 대상자들을 양성적, 남성적, 여성적, 미분화의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분류후 각 집단의 남성성과 여성성 점수를 내어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성역할 특성 집단별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의 평균

		여 성 성	
		중앙치 이상	중앙치 이하
남 성 성	중앙치 이상	양성적 집단	남성적 집단
		남성성=4.44 여성성=5.74	남성성=4.69 여성성=3.16
	중앙치 이하	여성성 집단	미분화 집단
		남성성=3.16 여성성=5.60	남성성=3.18 여성성=4.09

표에 제시된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들의 평균은 집단분류 방법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인데,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남성성 점수가 낮아서 양성적 집단에서도 남성성 점수가 여성성 점수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아 이 두가지는 Bem의 이론에서와 같이 상호 독립적인 성격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

전반적인 적응정도 대상자들이 전반적으로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의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특별히 적응정도가 낮아서 정신건강이 위기에

제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가려내기 위하여 Beck의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들에게 현재의 자신의 인생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5점 척도에 응답하게 한 결과, '매우 만족'이 5%, '만족하는 편'이 32%,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가 40%, '불만스러운 편'이 20%, '매우 불만족'이 3%로 나타났다. 현재의 생활에 구체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사람은 약 1/4정도로 그리 많지 않으나,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라고 대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Beck 우울증 검사점수의 분포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Beck 우울증 검사 점수의 분포

	빈도	%
우울증 없음(0-10점)	54	50.0
우울증이 약간있음(11-18점)	33	30.7
우울증이 상당히 있음(19-25점)	13	12.0
매우 심한 우울증이 있음(26 이상)	8	7.4
계	108	100.0

검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자들의 반은 우울증이 없었고 나머지는 약간이나 그 이상의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점수가 19점 이상으로 우울증의 정도가 비교적 심한 경우가 전체의 19%나 된다는

점이 주목할만 하다.

우울증과 현재의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간에는 $-.40(p<.001)$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증과 건강 사이에는 $-.28(p<.01)$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의 예측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적응정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A)생활의 여러측면(일, 결혼관계, 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B)성역할 특성중 남성성과 여성성이 상대적으로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생활의 여러 측면에 대한 만족도 중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인은 남편과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이고,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나 일에 대한 만족도는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의 예측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역할특성 중에서는 남성적인 특성들은 예측변인으로서 중요하나 여성적인 특성들은 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의 예측에서도 남편과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서 나타났으며, 일에 대한 만족도와 남성적 특성들이 약간의 관련이 있었다.

전반적인 적응정도가 여성성과는 관련이 없고 남

표 6. 전반적인 적응정도의 예측: 중다회귀분석 결과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	우울증
	R= .61 **	R= .46 **
예측변인:		
(A) 생활의 여러측면에 대한 만족도		
1. 일에 대한 만족도	Beta= .04	Beta=-.14
2. 결혼에 대한 만족도	= .51 **	-.35 **
3. 자녀관계 만족도	= .01	-.05
(B) 성격특성		
4. 남성성	= .28 **	-.13
5. 여성성	-.04	-.05

* $p<.05$, ** $p<.01$

성성과는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가 혹시라도 여성성 점수의 변량이 낮은 것에 기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성성 점수와 남성성 점수의 표준편차를 비교해 본 결과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여성성 점수는 전반적인 적응정도와 관련이 없지만, 남성성 점수는 높을수록 적응정도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의 여성성의 평균이 높게 나온 점을 고려해 볼 때, 남성성도 높은 사람은 대체로 양성적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적응정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우울증의 점수를 성역할 특성 집단으로 변량분석해 본 결과, 두가지 종속변인에서 모두 양성적 집단이 다른 세 집단보다 적응정도가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적응정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특징 비교 생활전반에 대한 적응정도가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이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척도의 중간점에 응답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만족'과 '불만족'의 범주로 묶어서 집단을 분류하였고, 우울증 점수 경우에는 검사점수가 낮아서 우울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상위 25% 집단과 점수가 19점 이상으로 높은 우울증이 있는 집단을 비교하였다.

먼저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집단과 만족하지 못하는 집단간의 차이를 보면, 만족하는 집단이 일에 대한 만족도와($t=3.38, p<.001$)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t=5.37, p<.01$)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이 두 집단의 성격특성을 비교해 보면, 만족하는 집단이 만족하지 못하는 집단보다 남성성 점수가 높았으나(각각 4.14와 3.68) $p<.05$ 의 유의미수준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였고, 여성성 점수는 별 차이가 없었다.

우울증이 없는 집단과 우울증이 비교적 심한 집단 간에도 역시 일에 대한 만족도와($t=3.23, p<.01$) 결혼에 대한 만족도에서는($t=2.25, p<.01$) 차이가 있

었고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성격특성을 비교한 결과 우울증이 높은 집단이 우울증이 없는 집단보다 남성성이 유의미하게 낮고(평균은 각각 3.72와 4.17, $t=2.13, p<.05$), 여성성 점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정도를 예측함에 있어서 양성성보다도 남성성이 더 유용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난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본헌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Taylor와 Hall(1982)은 meta-analysis를 이용한 광범위한 조사연구에서 양성성보다는 남성성이 심리적 적응의 예측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데, 첫번째의 설명은 여성적 반응양식은 능동적이고 실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스트레스의 원인을 해결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고, 두번째의 좀 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설명은 현재 사회적으로 여성적인 특성보다는 남성적인 특성을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가치관이 지배적이므로 이 사회에서 적응하는데에는 남성성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한 집단에서 경험적인 결과를 추적해나가면서 앞으로도 상당히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맺 는 말

이 연구는 취업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기혼여성들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적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알아봄과 동시에, 성역할 성격특성이 스트레스에 대처하여 적응하는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이 대상자집단에 있어서 생활에 대한 적응정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을 알아보았다.

노동상황을 살펴본 결과 상당수가 긴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대부분이 20만원 이하의 낮은 수입을 얻었다. 건강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노동시간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건강이 버티는 한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노동상황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 현재의 직장생활에서 가장 피로운 점으로는 일이 너무 힘들어 늘 피곤한 것, 봉급이 너무 적어 생활이 어렵은 것, 차별을 느끼는 등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작업장 환경이 나쁘고 작업에 시달리는 것 등을 호소하여 저소득층의 애로사항과 여성으로서의 애로사항이 중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직업에 대한 의식을 보면, 취업을 한 동기는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가 있었으나, 젊은 세대일수록 일을 한다는 것에서 돈을 버는 것 이외의 다른 보람과 의미를 찾는 경향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일에 대한 만족도에는 건강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동시간과 소득수준도 약간의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노동상황과 관련된 요인들만으로는 일에 대한 만족도를 이해하기 어렵고 직업을 갖는 것 자체에 대한 본인의 태도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을 가짐으로써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를 물어 본 결과 자녀의 보호와 교육문제와는 답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이 집안살림이 힘들어지는 것, 파도트 전장을 해치는 것등의 순으로서 전통적인 성역할의 분담에서 오는 문제들이 가장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녀의 나이가 어려서 보호자의 손길이 필요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 이외에도 일과가 중일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괴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꽤 있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본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엄마와 함께하는 숙제'를 내어주고 남편은 무직인 경우에도 자녀를 돌보아 주지 않는 점에서도 자녀의 양육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나타난다.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나, 남편에게 따르는 점을 자유로이 이야기하도록 한 결과 슬픔 안팎이었으면, 속속이지 않아 주었으면, 나를 무시하지 말았으면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 여성으로서 느끼는 불만들

과 봉급이나 잘 따왔으면, 돈 많이 벌어서 집안에서 살림이나 하게 해주었으면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불만들을 상당히 많이 털어 놓았다.

현재 가사노동의 분담에 있어서도 성역할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양식을 보였는데, 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을 보면, 지금보다는 남편이 더 가사를 분담해주시기를 바라고 있기는 해도 역시 고정관념적인 경향성이 나타났다.

적응과 관련된 성격특성으로서 성역할 자아개념을 조사한 결과 여성성은 높으나 남성성은 상당히 낮은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집단(예: 여자대학생)들에 비하여 이 집단이 매우 고정관념적으로 성전형화 되어 있는 것을 보여 주는데, 적응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남성성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았다. 남성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생활에의 전반적인 적응정도도 높다는 결과도 이러한 해석을 지지해 준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모두 결혼과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생활력이 강한 여성들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실제로는 '남성적인' 역할도 많이 수행하고 있으면서 자아개념은 매우 여성적이라는 사실이 놀랍다. 이는 우리의 고정관념적인 사회안에서 전통적인 사회화의 결과로 생겨난 자아의식이 실생활의 역할 경험에 의해서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으로 연구와 사업의 양측면에서 취업하고 있는 기존 여성들이 현실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규명과 개선을 해 나갈과 아울러, 스스로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도록 자아개념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줄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저소득층 기혼여성의 취업에 따르는 스트레스와 적응에 관련된 요인들을 발견해내기 위한 현장조사의 성적을 떠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자유응답의 형식을 많이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체계화되고 표준화된 검사가 개발되면 제창간,

적중간, 연령간 비교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성역할 특성의 측정을 위하여 사용한 BSRI도 Bem(1974)의 검사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으로서 우리 문화에는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다소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에 있는 표준화된 검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차 보고서: 정진경, 1989).

참고문헌

김명권 (1984). 생활사건과 우울 및 인지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 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대학 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심영희 (1988). 노동시장구조의 변화와 여성노동의 실태. 한국여성학, 4, 101-154.

이용숙, 김영희, 최상근 (1989). 어머니의 취업과 학교교육 및 자녀의 성취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RR89-26.

정진경 (1987). 성역할 연구의 양상적 시각. 한국여성학, 3, 132-160.

정진경 (1989). 한국의 성역할 고정관념 실태조사 및 성역할 측정검사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 보고서.

한국기독교 사회문제 연구원 편 (1983). 한국의 가난한 여성에 관한 연구. 민중사.

허순희와 정진경 (1987). 아동의 성역할 태도변화: 교사의 교수태도 및 내용이 미치는 영향. 사회심리학 연구, 3(1), 3-279.

Bem, S. L. (1972) *Psychology looks at sex roles: Where have all the androgynous people gone?* Paper presented at the UCLA

Symposium on Women.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Cook, E. P. (1985). *Psychological androgyny* NY: Pergamon Press.

Cott, N. F. (1977). *The bonds of woman-hoo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Dohrenwend, B. P., & Shrout, P. E. (1985). "Hassels" i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life stress variables. *American Psychologist*, 40, 780-785.

Frieze, I. H., Parsons, J. E., Johnson, P. B., Rubie, D. N., & Zellman, G. L. (1978). *Women and sex roles: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NY: Norton and Company.

Hareven, T. K. (1977). The family and gender roles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L. A. Carter, A. F. Scott, & W. Martyna(Eds.), *Women and men: Changing roles, relationships and perceptions*. NY: Praeger.

Hoffman, L. W. (1974).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on the child: A review of the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10, 204-228.

Holmstron, L. L. (1972). *The two-career family*. Cambridge, Mass.: Schenkman.

Kaplan, A. G., & Sedney, M. A. (1980). *Psychology and sex roles: An androgynous perspective*. Boston, Mass.: Little, Brown, and Company.

Kohn, M. L. (1968). Social class and schizophrenia: A critical review. In D. Rosenthal, & S. S. Kety(Eds.), *The transmission of schizophrenia* (pp. 155-174). London: Pergamon.

Nye, F. I. (1974). Husband-wife relationship.

- In L. W. Hoffman & F. I. Nye(Eds.),
Working mothers. San Francisco: Jossey-Bass.
- Straus, M. A., Gelles, R. J., & Steinmetz, S. K.
 (1981). *Behind closed doors: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Gordon city, NY: Doubleday Anchor Books.
- Taylor, M. C., & Hall, J. A. (1982). Psychological androgyny: Theories, methods, and conclusions. *Psychological Bulletin, 92*(2), 347-366.

韓國心理學會誌 : 社會
Kor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989. Vol.4, No. 2, 169—184

The Effects of Sex-role Stereotypes and Characteristics on the Adjustment of Married Working Women: The Case of the Low-income Class

Jean-Kyung Chu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sex-role related stress factors of the married working women of the low-income class, and to test the effects of sex-role characteristics on their adjustment to everyday life. Married women who are in their 20's to 40's and working in jobs such as factory worker, housemaid, street-vendor and cleaning person were interviewed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included the measurement of work-related variable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chores in the family, sex-role characteristics, and the adjustment levels. The results showed that, in addition to the difficulties of the poor working conditions such as low-income, long working hours, and poor work environment, problems due to stereotyped sex-roles such as taking care of the children, housekeeping, and over-working due to the double roles were serious stress factors for these women. The analysis of the sex-role characteristics showed in general high femininity scores and significantly low masculinity scores which is quite surprising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se women all have jobs outside the family. Whereas the femininity scores did not have any effect, the masculinity scor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rediction of the adjustment levels. This result was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sex-role characteristics of this subject population.